

△ 2000년도 초여 △

균형이론 교회 되자

순복음 Life

창간호

발행일 2000년 11월 5일

발행인 : 한승권

편집인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겸용)

<10월의 기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목사 한승권

척박한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시고
황토흙으로 가득하던 땅을
개간케 하신 주님.

어언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의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가능성을 보여 주셨던 그 꿈을
이 좋은 일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든 생기의 자루가 그 생명을 다하고
자루를 잡고 있는 손가락은 힘을 잃고 말았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매우 강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전하게 하신 주님.

주께서 세운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다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옵시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지역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일 뿐이옵니다.

유아상식

- 유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 -

교육은 인간적 유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빛나가게 하는 결과가 도리 수도 있지요.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체계적인 원리와 지침이 있을 때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활동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유아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의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충분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유아의 하루 일과를 속속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 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이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비정상적이고 빛나간 활동을 통해서라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에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친절하면서도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유아 교육을 위해서 친절과 자애로운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이나 실수도 우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멋대로의 행동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안 되는지 확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키도록 교육적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생활상식

<알레르기성 비염>

- 이영주 -

1. 증상 - a. 특징적으로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이외 눈, 코, 목 주위의 가려움증이 있다.
b. 머리가 아프거나 목 뒤로 무언가가 넘어가는 느낌
c. 눈물이 나오고 감기에 잘 걸린다.
2. 원인물질 - 집먼지, 집먼지 진드기, 고양이나 개의 털, 꽃가루 등.
3. 진단 방법 - 진찰 및 방사선학적 검사, 피부 반응 검사, 혈청검사
4. 치료 -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레이저를 이용한 코 점막수술로서 10~20분 정도의 시간에 수술할 수 있으며 수술시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고 상처 치유가 빠르다).
5. 민간요법 - 따뜻한 식염수를 스포이드를 이용해 자주 코에 넣어주면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다.
6. 예방법 - 진드기가 기생하는 이불이나 배개 등을 자주 삽고, 청소할 때 청소기를 이용하여 하며, 꽃가루가 원인일 경우엔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약풀살풀 “아나바다”

▲ 헤어 드라이기 - 사용기간은 4년이고요, 상태는 양호해서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값은 1,000원입니다. 색깔은

검정색,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종희 성도입니다.

그리고 집에 안 쓰고 광에 묵혀둔 물건 많으시죠? 같이
돌려가며 쓰자고요. 이런 물품들을 받고 있으니 내 놓으실
물건 있으시면 「순복음 Life」에 말씀해 주세요.

☞ 연락 전화 353-4515(김미진) 353-3516(이종희)

생명의 양식

제목 : 행복한 인생

성경 : 마 11:28~30

「즐거운 주일입니다.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죄악과 고통의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행복해 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며 죄악이 가득차서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 했으며, 행복하려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때로는 행복하려고 오늘의 고생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 먹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부르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예수님께 온전히 나갔을 때 고침받았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모두 온전히 나갔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습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2.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며 그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며, 결국은 포기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 무거운 것이 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사업 문제, 직장문제, 인간관계, 신앙문제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짐일지라도 감당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 4:23

은 “무릇 지킬만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 모든 일이 병들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욕심이라는 질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되는 것을 또는 가진다 하여도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4. 자신의 취약한 점을 이겨내야 합니다.

단점, 연약한 점들이 취약한 부분이며 이것들을 보완하며 수정하여 벌어진 틈을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습관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고치며, 이에 힘이 들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언어나 행동, 문화와 의식 등도 실수하지 말고 그릇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능력이며, 곧 축복입니다. 인생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고 맙니다. 은혜 받은 자는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할 때 행복한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해도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여도,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하여도,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하여도, 건강이 남보다 좋다하여도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할 때 참다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Q&A

Q : 목사님,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요?

A :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신앙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보편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신앙이요 무엇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히 11:2).

신앙서적을 읽고서

제목 : 영적습관 52

저자 : 루이스 폴라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복음중앙교회 장명희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습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믿는 성도로써 삶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좋은 습관이라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습관! 얼마만큼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고있는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외에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은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손으로 꼽을 정도는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뿐이지요.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또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나만의 수첩에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글 : 장명희 성도

성경과학 (빛)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빛은 파동으로, 혹은 광자라고 부르는 에너지 덩어리로 전달되며 직진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지나간 광자에 의해 다른 물체의 표면에서 그늘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광자가 흘러가는 것을 광선이라 한다. 옵기 38장 19절에 “빛의 처소는 어느 길로 거느냐”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 “길”은 히브리어의 「데렉(derek)」인데 “밟고 다니는 길”을 의미하며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같은 절의 “흑암의 처소”라는 말도 의미 있는 표현이다. “처소”는 히브리어로 「마콤(maqom)」이라고 하는데 “서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어두움의 정적(靜的)인 특성을 암시한다. 광자의 수는 밝은 빛으로부터 어두움을 향하여 갈수록 점점 줄다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광자도 전혀 없는 정적인 상태가 된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치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빛은 직진하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자설이 튜톤(Isaac Newton)경에 의해 제안되었고, 또한 호이겐스(Christen Huygens)는 빛의 파동설을 제안했다. 그 후 로이머(Olaus Roemer)는 목성의 위성들의 월식 시간의 차이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빛의 물리적 특성의 견지에서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한 말씀은 참으로 멋진 비유이다.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중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빛은 성경에서 진리나 영적인 빛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언급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장 12절).

성경인물 : 아담

개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자, 온 인류의 조상이다. 그의 이름 < adam ; 아담>은 '붉은 흙, 인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담은 아내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다.

1. 시대와 성장 배경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참조, 창 2:7). 이렇게하여 삼라만상이 형성되는 시기에 창조된 아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가 훌륭한 독서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라는 아내와 함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왔다.

2. 아담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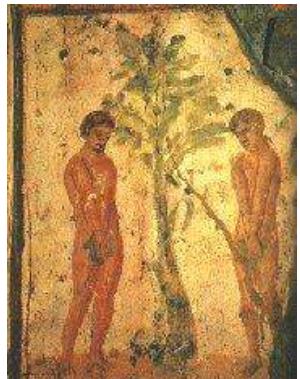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릴 특권과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되는 한 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그런데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불순종의 죄인 줄 아는 아담도 아내의 권유를 뿐리치지 못하고 함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아담의 죄악은 이 땅을 죄악으로 오염시켰으며, 죽음이라는 저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으나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얻게 되었다(참조, 창 4:25). 그 후 아담은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

3. 아담의 성품과 신앙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온 인류의 조상으로 만물을 통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와의 잘못된 권유가 분명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단호히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품을 소유하였다.

이는 그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경솔함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함도 엿볼 수 있다. 결국 아담의 불신양적 행위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와 죽음이라는 저주를 임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긍휼을 베푸사, 자신의 독생자를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새로운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특별히 우리는 죄악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인 뱘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 경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겠다. 아울러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피할 곳을 찾고자 애썼으나 실패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죄악은 결코 감출 수도, 변명할 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편리한 전화가 있는데도 굳이 편지를 쓴다. 정성들여 글을 보내 주신 분께 답장을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기엔 왠지 성의가 아니란 생각이 듦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니, 편지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바쁜 세상에 결코 시간 낭비나 정력의 낭비라 여겨지지 않는다. 전화가 나름대로 신속성과 간편성은 있지만 편지를 받을 때의 설렘과 펼쳐 읽을 때의 따스한 정감에 견줄 수 없다.

편지는 정리된 사고(思考)의 전달 매체다. 다듬어진 내적 풍경의 외적 표현이다. 띄우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보내면 받게 되는 연속성도 있다.

그래서 '오는 정 가는 정'이라 해도 좋고, '나눔의 미학'이라 해도 진부하게 들리지 않는다. 편지는 고독한 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쩌면 삶을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다정다감한 기별(奇別)인지도 모른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읽고 구겨 버릴 수 없는 편지가 많다.

이와 같은 인상적인 편지는 언제 다시 읽어보아도 정감이 우러난다. 편지첩(便紙綴)에 보관하면 하나의 개인 역사첩(帖)이 된다.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분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평소 작품으로만 존경해 있던 분의 편지인데, 이 분의 성함보다도 작품집 <바보네 가게>라고 하면 아는 분이 더 많을 것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열거해 주시는 성의가 가슴으로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쓸 때나 책을 보내 주실 때나 내 이름자 밑에 꼭 '대아(大雅)'라 써 주시는데 경의없는 친근함으로 느껴졌다.

인상적인 편지라면 주례를 서 주셨던 분의 편지도 빼놓을 수 없다. 어른께서는 장성한 손아랫사람에게도 '예사 낫춤체'를 쓰지 않는 다.

안부 편지를 드리면, 꼭 답장을 주시는데 서두에 귀한배송(貴翰拜誦)이라 쓰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오.'라고 끝맺음하신다.

약간 한문 투가 섞인 서한이긴 하지만, 오히려 연로하신 어른의 멋으로 느껴진다. 이밖에도 편지 철에는 사백(舍伯)의 편지도 많다. 시간을 요하지 않는 집안 소식은 꼭 서신으로 전하시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편지 한 통을 나의 첫 수필집에 실었더니 나중에 책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

작품처럼 소중한 글월이어서 한번 읽고 버릴 수 없었다고 뒤늦게 양해 말씀 드렸더니, 형님께서는 의미가 더욱 새롭다고 웃으셨다.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편지를 쓰는 일은 고리타분한 일이고 구식 사람 소릴 듣기 십상이다. 그래서 집배원의 가방 속에는 정이 담긴 편지 보다 사무적인 인쇄물이 더 많아졌다.

어디 그뿐인가.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요즘엔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고 또 받아보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에서 객지에 나간 자식을 그리워하며 정성들여 편지를 쓰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식은 장거리 전화로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한 마디 하면 그만인데도.*

나는 어렸을 적 내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는 수성 한 편이었다. 아버님이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을 가지신 관계로 나는 초등학교만 네 군데를 전전하며 좁은 나라의 이곳 저곳을 헤집고 다녔고 그런 와중에 늘 나에게 따라 붙었던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수식어들이 서너 가지 정도 되는 듯 싶다. “저놈아 연구 대상 감이야” 등.. 낯선 지방, 낯선 학교, 낯선 아이들 틈에서 차차로 나는 나름대로의 삶의 법칙을 터득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헤치고 다녔고 그 와중에 깨달은 삶의 법칙이란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것은 전학간 학교의 내노라하는 강자를 거꾸러뜨리는 것.

그때의 세상 살림살이는 무척 어려웠고 하루 한끼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강제 규정까지 나라에서 만들어 놓았었다. 그 나마 먹고 살만 하였던 나의 그림 같았던 상도동 집에는 어려운 살림에 입하나 줄이기 위하여 남의 집에 보내어 지던 때 여자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싸온 봇짐을 풀었고 철없던 이놈은 가련한 여자아들을 놀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 장난도 서슴치 않았다.

집안의 더러운 음란의 괴신은 먼저 조상 때부터 상투 대가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 집안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작은마누라들 두기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였다. 수많은 삼촌, 그 모..... 이하 사촌들. 우리 집은 항상 대소사일에 관여한 회담장이었고, 집합소였고, 제사터였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종가집 며느리의 굴레려니 여기시고 묵묵히 잡다한 뒷바라지들을 수행하였다. 아버님의 외도 벽은 거침이 없이 항상 떠떠하시었고... 아! 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었다.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유 없는 반항들은 나의 좁은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그런데 꿈틀거리는 것들을 조용할 때 가끔은 꺼내어 보면서 어렵잖은 안개속을 헤메이듯 무서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포의 진리를 말이다.

찌들은 듯한 반항의 이유 중 어느 것인가 그 중에 일부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날 상상의 한계를 넘는 멋진 드라마로 인하여 개명이 불가능 했던 시절 제대 말년에 아버님께서는 내 이름을 “정훈”으로 바꿔 놓으셨다. 뱀이 허물을 벗고 반뜻한 새 죽말로 단장하듯.... 나는 예전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새 이름을 단장하며 그 전의 죄악도 모두 벗어 버렸다. 허나 하나님 나라의 명판에 새겨진 죄악까지 모두 지워 졌을까!! “창호 한 많은 이름”

99년 5월 주님의 천사로 나에게 보내어 졌던 친구와 그 동안의 순수했던 우정을 파계하여 버리고 얼마후 케나다로 친구는 멀리 떠나가 버렸고, 연말 케나다로부터 나에게 눈물어린 애절한 견유로 몇번의 전화를 받았다.

부산 어느 교회의 부흥회에 꼭 참석하라고 말이다. 친구의 견유 속에 나는 집회에 참석했고 산상 집회에서 삼천여명의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나를 그만 꽉 붙들어 버렸다. 거기에 이유도 없었고, 말도 필요 없었다. 그냥 나는 무릎 꿇었다. 밤낮없는 삼일 동안을 끝내고 올라오던 중 어느 휴게소에선 가 화장실 앞에 있는 문구가 나를 감동 시켰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하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종가집 이었던 많큼 각종 제사며 주님을 모르는 집안 어른들과 가족들의 노함도 대단하였다. 주님은 죄 많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다. 장손이셨던 형님의 신앙의 초석으로 인해 나의 환난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고 평탄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나는 어머니가 계신 서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와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 온 순복음중앙교회는 내 신앙의 정착을 앞당기는 기회였다.

주님은 새벽 제단 시간이면 꿈으로 어김없이 깨워주셨고 새벽 기도는 술, 담배를 끊게 하고 모나고, 각진 여러 가지 모습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듬어 주셨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지극히 아름다운 순복음중앙교회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단단한 신앙으로 다져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만 사신 어머니를 보면 당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침례 받는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갖자면 사랑하는 누님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악신에 사로 잡혀 고통 가운데 있다. 안타까운 것은 누님이 절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님이 속히 주님을 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쌍둥이 조카들도 속히 치료함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오시는 날 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 선한 싸움을 감당 할 것이다. 부족한 것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종숙 권사님의 인도로 오신
김현숙 집사님입니다.
서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은 청실빌라로 이사하셔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가족을 소개하자면, 큰아들 박 연수는
20살이고, 둘째 성수는 18살입니다.
채운리 청실빌라 A동 203호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는 357-5869 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맛자랑

<양장피>

주재료 : 양장피 3장, 돼지고기, 새우, 버섯, 양파, 당근, 계란

소스재료 : 식초, 백설탕, 연겨자, 배, 식용유, 간장, 후추, 맛소금

= 주재료준비 =

1. 양파, 당근은 채를 썰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맛소금을 약간 넣고 볶는다.
2.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간장과 후추를 넣어 볶는다.
3. 계란은 흰자와 노란자를 구분하여 후라이팬에 부친다음 채를 썰어 둔다.
4. 새우는 껌칠을 벗겨서 살짝 데치고, 버섯도 꽂는 물에 대쳐 끓는다.

= 소스재료준비 =

식초와 설탕은 1:1 비율로 하고 연겨자는 잘 풀어 두고, 배는 강판에 칼아둔다. 그리고 이것을 잘 혼합하여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양장피를 팔팔 꽂는 물에 삶아 낸다. 가위를 먹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자른다. 1-4의 재료를 준비해 둔 것을 예쁜 접시에 대각선으로 놓고 가운데에 소스를 넣어 섞어서 먹으면 된다.



제공 : 이영주성도

이달의 교회 움직임

1. 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 * 일시 : 2000년 10월 19일
- * 장소 : 순복음중앙교회
- * 사회 : 한승권 담임목사
- * 설교 : 주철순 목사
(복된교회 담임)
- * 중식, 기념품 제공

2. 전도대회

- * 일시 : 10월 26일
- * 지역 : 당진읍내
- * 참석 : 1남, 3여선교회
- * 방식 : 노방전도, 즉호전도
(전도지, 상담)

3. 가을심방

- * 일시 : 10월 30일~
11월 30일
- * 대상 : 전가정
- * 방법 : 구역별로
- * 내용 : 말씀 액자

사탄문화에 관하여 (New Age)

뉴에이지의 기원과 사상

뉴에이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창세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창 3:4~5)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부터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심을 자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는 마음을 심어 반역하게 하려는 것이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특히 그 시대의 문화를 적절히 이용한다.

뉴에이지의 사상의 특징을 보면 우선은 신이 만물이며, 만물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고, 일원론을 부정하여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또 한 환생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매료되는 이유

첫째,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심판하지 않는 뉴에이지의 신에 이끌리며, 모든 종교는 공통적 진리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뉴에이저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요가 유체이탈 등 여러 가지 신비한 의식의 경험을 통하여

의식의 전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 요법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관계 개선과 자아개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조정하는 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점성술, 복술 등을 이용하여 미래를 점치며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여섯째, 뉴에이지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등등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리인 듯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알자

◆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은 internetwork의 준말로 전세계의 수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TCP/IP(약속)이라는 통신 규약을 이용해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합체이다.

전세계의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통신망을 말하며,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로의 접속이 가능하다.

◆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

E-Mail을 이용하여 편지와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IRC(World Chat)를 이용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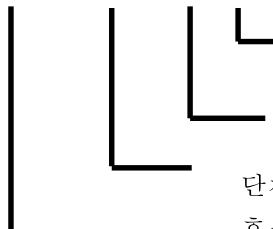
온라인, 쇼핑, 주식, 투자, 화상회의 등등.....

◆ 도메인명이란

IP Address는 모두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힘들므로 이를 문자화한 것이 도메인명이다.

도메인명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메인명을 해석할 때에는 오른쪽에서 원쪽 방향으로 한다.

w w w .d j f g c c .p e .k r



국가 도메인명

기관 도메인명

단체 이름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

신앙 유머

자동차 속도에 맞는 찬송가

130Km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은

140Km - 갈길을 밟히 보이시니

150Km - 하늘가는 밝은 길이

160Km -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70Km -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뷰는 집

180Km -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詩

사랑의 편지

주님께 서 보낸 - 사랑의 편지 읽고
주님께 서 풍긴 - 섬김의 향기 맡고
내를 향한 사랑 깨물아 안뒤 얼마나 감격했는 지
내를 향한 섬김 깨물아 안뒤 얼마나 감격했는 지
내 잔을 맘 속에 - 주를 향한 - 사랑 - 이 -
내 잔을 맘 속에 - 주를 향한 - 섬김 - 이 -
날이 갈 수록 귀족만가네 주를 향한 사랑
날이 갈 수록 귀여만가네 주를 향한 섬김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 하여
주님의 섬김으로 이웃을 먼저 섬겨
세상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게해 주자
세상사람에게 섬김의 향기를 맡게해 주자

삼행시

==> 바나나 <==

바 : 바나나야!!!!
나 : 나야!!!
나 : 나???? 너를 좋아하는 원숭이지롱

詩

가을남자

강만(流水)

가을입니다

들끄러니 나무들이 추억을 말리며 서이십니다

이러한 때 더구나 토요일 오후

그대의 이오이 한 사내의 고독에 대하여

그대는 아십니까

아내의 방을 떠나

사내는 무수히 가을을 시도해 보지마

낭만의 기발이 펄럭이는 어느 항구나 추억으로

가는 길모도

그의 지도에는 이미 지워지고 없습니다

나은 모서처럼 가로수 아래 서서

손을 이마에 얹고 하늘을 보고 있는 사내

황금빛 낙엽 하나 수직으로 내려와

심연에 잠든 고독의 정수리에 꼬집니다

피 흘리며 피 흘리며 방황하는

고독의 눈물이 금강석 보다 놀부십니다

서성이는 배후에 노을이 짐니다

기다리 사람도 동행 할 사람도 없이

팜코 한 봉지를 들고 영화관 속으로 사라지는

그렇지요 그대의 이오이 그 사내에 대하여

그 사내와 같은 고즈넉의 맑은 설득에 대하여

설득을 악사시키는 바다에 대하여

그대는 알고 이십니까

가을 더구나 이 기막힌 토요일 오후의.

*** 투터지 ***

두 : 두더지야!!!!

더 : 더럽게 왜 땅 속에서 사냐?

지 : 지도 지하실에 살면서 셋.....

10월의 애식구

1. **김현숙집사** - 당진읍 채운리
한나여선교회 사랑구역
전도자 : 김종숙권사
2. **권복순집사** - 당진읍 채운리
한나여선교회 희락구역
전도자 : 원재옥집사

교인동정

1. **개업** - 황대구성도 : 중화요리
(만리장성) ☎ 352-3520
송산면 동곡리
김명희성도 : 분식집
(만나분식) ☎ 355-6439
안신태우 내 2층
2. **목사님 자량 변경**
충남 33기 5545

교회동정

1. 교회는 심야전기를 가설하였습니다.
2. 11월 5일부터는 저녁예배를 7시로 변경합니다.
3.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수리, 창고수리, 하수구 물탱크청소,환경정리)

예배 및 각종 모임 양재

| 대상 | 요일 | 모임 | 시간 | 비고 |
|----|-------|--------|------------|--|
| 예배 | 장년 | 주일 | 1부 예배 | 오전 8시 |
| | | | 2부 예배 | 오전 11시 |
| | 수요 | " | 저녁 예배 | 오후 7:00(11월 ~ 4월) 오후 8:00(5월 ~ 10월) |
| | | | 저녁 예배 | |
| | 주교 | | 아침 예배 | 오전 11시 |
| | | 금요 | 구역 예배 | 각 가정에서 |
| | 학생 | 주일 | 오전 예배 | 오전 9시 |
| | | " | 오후 예배 | 오후 3시 |
| | 청년 | 토요 | 성경공부 | 오후 5시 |
| | | 주일 | 정기 예배 | 오후 5시 |
| | | 토요 | 정기 예배 | 오후 7시 |
| 기도 | 장년 | 금요 | 철야기도회 | 밤 9시 |
| | 월~토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 |
| 교육 | 장년 | 목요 | 초신자양육 | 오전 11시 |
| | | 목요 | 새신자훈련 | 오후 1시 |
| | | 화요 | 평신도훈련 | 오전 11시 |
| | | 화요 | 구역장공과 | 오전 6시 |
| | | 화요 | 제자훈련(초급) | 오후 1:30 |
| | | 화요 | 제자훈련(중급) | 오전 9:30 |
| | | 화요 | 제자훈련(고급) | 오전 9:30 |
| | | 주중 | 일대일양육 | 정한시간 |
| 모임 | 성가 | 목요 | 영적성장세미나 | 오전 11시 |
| | | 수요 | 교사대학 | 오후 1시 |
| 활동 | 율동선교단 | 주일 | 연습 | 오전 10시 |
| | | 토요 | 연습 | 오후 5시 |
| | | 수요 | 1기(레마) | 오전 10시 |
| | | | 2기(샬롬) | 오후 1시 |
| | 토요 | 3기(셀라) | 오후 5시 | 연습 |
| | 찬양선교단 | | 연습 | 매주 화, 목 |
| | 컴퓨터 | 월요 | 컴퓨터교육 및 작업 | 오후 5시 |
| | | 화~토 | 컴퓨터교육 | 오전 10시 ~ 오후 9시 |
| | | | | PC방 운영 교육생 |

◎ 11월중 교회행사

1. 성경쓰기대회 – 11월 1일~12월 10일 / 예레미야 1~52장
2. 기관총회 – 11월 12일까지 종료. 교회로 결과 보고바람.
3. 추수감사절예배 및 찬양대회 – 예배 : 오전 11시 대회 : 오후 5시
부분 : 개인, 구역, 단체(1인 2팀까지 가능)
방법 : 곡목 1곡(악보 2부 제출), 11월 8일까지 신청

▲ 신나는 퍼즐 ▲

<가로 열쇠>

| | | | | | | | |
|----|----|----|---|----|----|----|----|
| 1 | | 2 | | 3 | 4 | | 5 |
| | | 6 | 7 | | | | |
| 8 | 9 | | | | | | |
| | 10 | | | | | | 11 |
| 12 | | 13 | | | 14 | | |
| | | 15 | | | | | |
| 16 | | 17 | | 18 | | 19 | |
| | | 20 | | 21 | | | |

1.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2. 사업과 사랑의 섬김으로 칭찬받는 한편,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받은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 하나.
3. 나는 자비를 원하고OO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12:7).
4. 우리의 지체를 의의 OO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롬 6:13).
5. 유대 율법을 반대하고 자긍하며 4백명 도당을 모집했다가
6. OO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니라(슥 9:9).
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
8. 아브라함의 아버지.
9.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은 곳.
10. ‘도마’의 다른 이름(요 20:24).
11. 옵의 친구 빌닷은 이 곳 사람
12.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이는 OOO요 참아들이 아님.

<세로 열쇠>

1.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이것 대신 무교병을 먹음
2. 알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갈 5:22-23).
3.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이곳을 통과함(행 17:1).
4.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수 2:1).
5. 아브라함의 아내
6. 이스라엘의 제 5대 사사. OOO과 3백 용사(삿 7장).
7.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첫 번째로 진친 광야(출 15:22).
8. 유다의 최후의 왕(왕하 25:1).
9.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다시 방문했으며,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고 전파함(갈 5:1)
10. 판결 흉패 안에 넣어 대제사장의 가슴 뒤에 놓이도록 한 작은 돌이나 아로새긴 것(출 28:30).
11. 계략을 꾸미는 사람.
12. 하나님의 OO와 엄위를 보라(롬 11:22-24).

♣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영성을 위한 10가지 쟁고

▲ 실패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쟁고 ▲

1. 모든 일에 불평할 것을 먼저 찾으라
2. 놀 것만을 생각하라
3. 좀 더 자라
4. 수고하길 거부하라
5. 적당히 적당히 하루를 넘기라
6. 있을 때 마음껏 써라
7. 계획과 목표가 없이 살라
8. 안되는 일이 있으면 더 하려고 하지 말라
9. 공상이나 즐겨라
10. 이젠 틀렸다고 중얼거리라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